

고1
공통국어1
미래엔

2026 고1 공통국어1 미래엔 | 1(4) 풀 비린내에 대하여 기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상 출제 유형

글의 중심 소재인 '자동차'의 속성 및 그와 관련된 글쓰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될 수 있습니다. 3문단에서 드러나는 자동차에 대한 현대인들의 모순적인 욕구를 바탕으로 '감성적 기계'라는 표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풀 비린내'라는 후각적 이미지로 제시되는 글쓰이의 경험과 성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글쓰이는 '자동차'라는 문명의 편안함에 익숙해졌다가, 수많은 풀벌레가 차에 부딪혀 죽은 잔해를 발견하고 '자동차'가 자신의 의도와 달리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쓰이의 변화에 대해 묻는 문제 역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글쓰이가 겪은 경험 및 그 전후 변화 역시도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광주 비엔날레에서 태국의 수라시 꾸솔왕이라는 작가의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다. 이 작품은 1965년형 자동차에서 엔진과 핸들, 타이어, 샤프트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차체를 뒤집어 그네 침대로 설치한 것이다. 그네 옆에는 타이어를 비롯한 부속을 재활용해 만든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차체로 만들어진 그네 침대 속에서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 나는 타이어를 쌓아 만든 의자에 걸터앉아 그 「감성적 기계」를 바라보았다. 흔히 '달리는 무기'라고 불리는 자동차가 완전히 해체됨으로써 새로운 용도로 거듭난 모습은 예술 고유의 전복성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 보게 했다.

그 무렵 나는 초보 딱지도 떼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을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면허를 따 놓고도 5년이 넘도록 차를 살 생각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객지로 이사한 후로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으로 해결해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운전을 [A] 하게 되었다. 물론 처음엔 출퇴근 때나 장을 볼 게 많을 때만 차를 가지고 다녔다. 그러나 마음이 답답할 때 무작정 차를 몰고 교외로 나가는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실제적인 목적 없이도 차를 모는 일이 잦아졌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줄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 그렇게 조금씩 길들여져 갔다.

스웨덴의 생태학자인 에민 텡스뮈는 자동차라는 물건이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이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해 준다."라고 말한 바 있다. 현대인들이 자동차라는 '아늑한 자궁'으로부터 잠시도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모순된 욕망을 자동차라는 공간이 해결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앞에서 말한 「감성적 기계」처럼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아도 자동차는 이미 충분히 '감성적 기계'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 나희덕, 「풀 비린내에 대하여」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시간 순서대로 여정을 설명하며, 그 과정에서의 견문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역설적인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상황을 교차하며 비교하고 있다.
- ④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생태 문제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 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쓰기가 글을 쓰게 된 계기와 관련이 있다.
- ②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 ③ 예술 고유의 전복성으로 자동차를 새롭게 표현하고 있다.
- ④ 관객이 작품에 참여하며 익숙한 대상을 낯설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 ⑤ ‘나’가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한다.

3. [A]에 드러난 글쓰이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오랫동안 운전을 하지 않다가 객지에서의 생활 때문에 다시 운전을 하게 되었다.
- ② 면허를 딴 직후 느꼈던 자동차의 편리함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
- ③ 운전을 다시 시작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답답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
- ④ 자신의 자동차가 너무 작아 밀폐된 느낌을 준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⑤ 아이들을 낳고 돌보며 면허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4. 윗글의 표현상 특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다.

ㄴ.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구조적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ㄷ. 대상이 지닌 속성을 비유적 표현을 통해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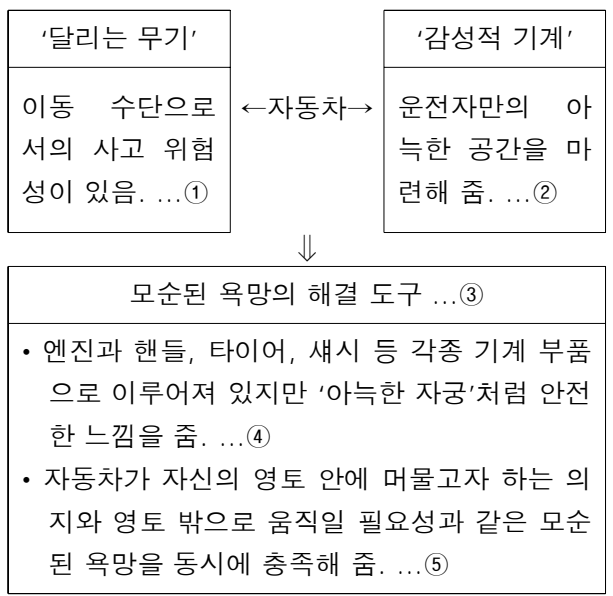
ㄹ.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글쓰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5.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동차로 대표되는 문명의 이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생명을 살생하는 위험한 도구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자동차가 개발되며 인간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벗어나 더욱 안락한 보금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 ③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 오롯이 혼자가 될 수 있는 공간이 자동차로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 ④ 자동차를 통해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자신의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⑤ 자동차를 통해 쉽게 이동하기 위해 국토를 개발하면서 기존에 존재했던 자연 생태를 파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6. 윗글에 나타난 ‘자동차’의 성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7~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갑자기 서울에 갈 일이 생겼는데 주말이라 차표를 구할 수 없었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나는 초보 주제에 식구들을 태우고 서울로 가는 고속 도로로 접어들었다. 긴장을 해서인지 무사히 서울에 도착해서 일을 보고 다음 날 밤에 광주로 돌아올 수는 있었다. 그런데 밤에 고속 도로를 달리다 보니 차창에 무언가 타닥타닥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 처음엔 그저 속도 때문에 모래 알갱이 같은 게 튀는 소리려니 했다.

① 다음 날 아침 출근을 하려는데 유리창은 물론이고 앞 범퍼에 푸르죽죽한 것들이 잔뜩 엉겨 있었다. 그것은 흙먼지가 아니라 수많은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쳐 죽은 잔해였다. 마치 거대한 모터 주위에 두텁게 쌓여 있는 먼지 뭉치처럼 말이다. 그것을 닦아 내려다 나는 지난밤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 도망치듯 세차장으로 갔다. 그러나 세차 기계의 물살에도 엉겨 붙은 풀벌레들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 풀 비린내는 몸서리치는 기억으로 남았고, 나는 손을 씻고 또 씻었다.

시속 100킬로미터 정도의 속력에 그렇게 많은 풀벌레가 짓이겨졌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이런 살상의 경험을 모든 운전자들이 초경처럼 겪었으리라는 사실이야말로 나에게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자각이 그제서야 찾아왔다.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공기 중의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 봐 얼굴에 일곱 겹의 천을 두르고 다녔다고 한다. 그걸 생각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생 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나는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그것이 ㉡ 풀 비린내뿐만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운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걷기 예찬자였고, 인공적인 공간보다는 자연 속에 머물기를 누구보다

좋아했다. 그러나 차를 소유하고부터는 생태적인 어떤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만 그날 아침의 풀 비린내가 원죄 의식처럼 운전대를 잡은 내 손에 남아 있을 따름이다.

- 나희덕, 「풀 비린내에 대하여」

7. 윗글에 드러난 글쓴이의 생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자동차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다.
- ② 생명을 위해 불필요한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살생을 저지할 수 있다.
- ④ 티베트의 승려들은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 문명과 거리를 두고 산다.
- ⑤ '나'가 자동차가 주는 편안함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계속 유의해야 한다.

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을 근거로 하여 사회적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철학적 문제에 대한 글쓴이의 입장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③ 대상에 대한 주관적 감상보다 객관적 사실 전달에 집중하며 독자의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 ④ 일상에서의 특정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예술 작품에 대한 자신의 비평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인물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 대상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다.

9. ㉠와 ㉡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는 모두 자동차를 통해 충족할 수 있는 모순된 욕망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와 ㉡는 모두 차를 소유한 사람들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 의식이 드러난다.

- ③ ㉠은 글쓰이가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며, ㉡는 문명의 이기에 길들여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기하는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
- ④ ㉠은 자신의 편안함보다 다른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는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편안함을 누리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 ⑤ ㉠은 비현실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모습을, ㉡는 현실적인 목표를 모색하는 모습을 상징한다.

10. ㉠의 상황에 알맞은 사자성어는?

- ① 다음날에 자동차에 엉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다니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고 할 수 있군.
- ② 자동차에 부딪쳐 죽은 풀벌레들의 잔해가 푸르죽죽하게 엉겨 있는 모습은 목불인견(目不忍見)이라고 할 수 있군.
- ③ 고속 도로를 운전하며 소리를 들을 때에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다가, 죽은 풀벌레들의 잔해를 보고 죄책감을 느끼다니 우이독경(牛耳讀經)이라고 할 수 있군.
- ④ 풀벌레들을 죽일 것을 알면서도 함부로 운전을 한 글쓰이의 태도는 방약무인(傍若無人)이라고 할 수 있군.
- ⑤ 자신이 풀벌레들을 죽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글쓰이의 모습은 토사구팽(兔死狗烹)이라고 할 수 있군.

11.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수필은 글쓰이가 자신의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교훈 등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글이에요. 발상과 표현 면에서 글쓰이의 개성이 잘 드러나며 형식이 비교적 자유로워요. 이러한 갈래적 특성이 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말해 볼까요?

- ① 자동차라는 일상적인 대상에 대한 글쓰이의 개성적인 발상이 드러나고 있어요.
- ② 글쓰이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독자에게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 ③ 후각적인 표현을 활용해 주제를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 ④ 자동차가 생명체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인식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 ⑤ 자신이 얻은 교훈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시하며, 독자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있어요.

1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평소 글쓰이는 서울까지 운전을 해서 다니곤 했다.
- ② 글쓰이는 서울에서 광주로 돌아오는 길에 긴장을 해서 사고를 냈다.
- ③ 글쓰이는 풀벌레들이 차체에 부딪쳐 죽은 잔해를 보고 죄의식과 충격을 느꼈다.
- ④ 글쓰이는 자신이 풀벌레를 죽인 것이 운전에 미숙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 ⑤ 글쓰이는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세차를 하는 습관이 생겼다.

13. <보기>와 윗글을 비교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나는 장마 전에 시골집에 가서 고추밭과 집터서리에 뒤덮인 잡풀을 이틀에 걸쳐 뽑고 베고 하였다. 장마가 지면 고추밭이 풀밭이 되고 울안의 빗물도 빠지지 않아서 나간 집이나 다름이 없어질 터이기 때문이었다. 풀을 뽑고 베고 하는 동안에 팔과 다리에 '풀독'이 올랐다. 뽑히고 베일 때 성이 난 풀잎에 팔과 다리가 긁히더니 이윽고 벌겋게 부르트면서 옷이나 움이 오른 것처럼 가렵고 따갑고 쓰라려서 안절부절 못하게 된 거였다.

-이문구, 「성난 풀잎」 중

- ① 윗글과 <보기> 모두 자연과 관련된 글쓰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 ② 윗글과 <보기> 모두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글쓰이의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 ③ 윗글과 <보기> 모두 글쓰이가 특정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다.
- ④ <보기>와 달리 윗글은 대상에 대한 글쓰이의 생각 변화가 드러난다.
- ⑤ <보기>와 달리 윗글은 자신의 경험과 대조되는 사례를 들고 있다.

14. 글쓰이가 윗글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 ①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고, 생태계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인식하고, 항상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 ③ 자동차의 효용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면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선에서 타협해야 한다.
- ④ 자동차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피비린내도 불러올 수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아야 한다.
- ⑤ 자동차가 효율적이더라도 의도치 않게 생명을 뺏아갈 수 있다는 위험성이 더 크니 다른 교통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광주 비엔날레에서 태국의 수라시 꾸솔윙이라는 작가의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다. 이 작품은 1965년형 자동차에서 엔진과 핸들, 타이어, 새시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차체를 뒤집어 그네 침대로 설치한 것이다. 그네 옆에는 타이어를 비롯한 부속을 재활용해 만든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차체로 만들어진 그네 침대 속에서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 나는 타이어를 쌓아 만든 의자에 걸터앉아 그 「감성적 기계」를 바라보았다. 흔히 '달리는 무기'라고 불리는 자동차가 완전히 해체됨으로써 새로운 용도로 거듭난 모습은 예술 고유의 전복성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 보게 했다.

(나)

스웨덴의 생태학자인 ㉡에민 텡스웜은 자동차라는 물건이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이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해 준다.”라고 말한 바 있다. 현대인들이 자동차라는 ‘아늑한 자궁’으로부터 잠시도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모순된 욕망을 자동차라는 공간이 해결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앞에서 말한 「감성적 기계」처럼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아도 자동차는 이미 충분히 ㉢‘감성적 기계’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다)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공기 중의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 봐 얼굴에 일곱 겹의 천을 두르고 다녔다고 한다. 그걸 생각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생 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나는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 비린내뿐만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 나희덕, 「풀 비린내에 대하여」

15. (가)에서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제시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의 중심 소재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밝히기 위해
- ② 자신이 자동차에 대한 글을 쓰게 된 계기를 독자와 공유하기 위해
- ③ 자신이 감상한 예술 작품처럼 일상적인 대상을 새롭게 보게 되었음을 드러내기 위해
- ④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려고
- ⑤ 예술 고유의 전복적 시각에 대해 접한 경험을 독자와 공유하려고

16. ㉠과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글쓴이가 자신의 게으름을 성찰하게 된 계기를 의미한다.
- ② ㉠과 ㉡은 모두 오랫동안 운전을 하지 않던 글쓴이가 다시 운전을 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 ③ ㉠은 대상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을, ㉡은 대중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을 의미한다.
- ④ ㉠은 익숙한 대상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된 것을, ㉡은 익숙한 대상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된 것을 의미한다.
- ⑤ ㉠은 자신이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게 된 것을, ㉡은 사소하다고 생각한 것들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17. ㉢의 생각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인은 자동차를 통해 자신의 모순된 욕망을 충족하고 있다.
- ② 현대인이 자동차에 안주하려는 욕망을 느끼는 것은 자동차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 ③ '나'가 실제적인 목적 없이도 차를 모는 일이 잦아진 것은 '아늑한 자궁'으로부터 잠시도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④ '나'가 마음이 답답할 때 무작정 차를 몰고 교외로 나간 것은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자동차가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줄 수 있다는 것은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충족해 주는 자동차의 속성과 관련이 있다.

18. 문맥상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의 대량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개인화가 가능한 자동차를 통해, 사용하는 사람의 개성을 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군.
- ②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모순된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기계라는 자동차의 이중적 속성을 나타내는 군.
- ③ 과거와 달리 자동차의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측면 역시도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군.
- ④ 기술의 발달로 인해 자동차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는 의미군.
- ⑤ 자동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자동차라는 밀폐된 공간을 안락한 공간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의미군.

19. 윗글의 제목인 '풀 비린내에 대하여'가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을 그만두게 된 이유와 관련된 경험 및 깨달음을 글로 썼다.
- ② 운전을 하다 풀벌레를 죽인 경험으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시 운전을 시작하기 위해 글을 썼다.
- ③ 자신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생명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대조적인 태도를 지녔음을 지적하고 비판하기 위해 글을 썼다.
- ④ 자신이 편리함을 누리는 동안 다른 생명은 죽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경험과 깨달음을 글로 썼다.
- ⑤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과거와는 달리 자연을 접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깨닫고 자연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썼다.

【20~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 무렵 나는 초보 딱지도 떼지 않은 상태여서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을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면허를 따 놓고도 5년이 넘도록 차를 살 생각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객지로 이사한 후로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으로 해결해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 물론 처음엔 출퇴근 때나 장을 볼 게 많을 때만 차를 가지고 다녔다. 그러나 마음이 답답할 때 무작정 차를 몰고 교외로 나가는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실제적인 목적 없이도 차를 모는 일이 잦아졌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줄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 그렇게 조금씩 길들여져 갔다.

(중략)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갑자기 서울에 갈 일이 생겼는데 주말이라 차표를 구할 수 없었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나는 초보 주재에 식구들을 태우고 서울로 가는 고속 도로로 접어들었다. 긴장을 해서인지 무사히 서울에 도착해서 일을 보고 다음 날 밤에 광주로 돌아올 수는 있었다. 그런데 밤에 고속 도로를 달리다 보니 차창에 무언가 타닥타닥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 처음엔 그저 속도 때문에 모래 알갱이 같은 게 튀는 소리려니 했다.

[A] 다음 날 아침 출근을 하려는데 유리창은 물론이고 앞 범퍼에 푸르죽죽한 것들이 잔뜩 엉겨 있었다. 그것은 흙먼지가 아니라 수많은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쳐 죽은 잔해였다. 마치 거대한 모터 주위에 두텁게 쌓여 있는 먼지 뭉치처럼 말이다. 그것을 닦아 내려다 나는 지난밤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 도망치듯 세차장으로 갔다. 그러나 세차 기계의 물살에도 엉겨 붙은 풀벌레들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풀 비린내는 몸서리치는 기억으로 남았고, 나는 손을 씻고 또 씻었다.

시속 100킬로미터 정도의 속력에 그렇게 많은 풀벌레가 짓이겨졌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이런 살상의 경험을 모든 운전자들이 초경처럼 겪었으리라는 사실이야말로 나에게서 못한 충격이었다.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자각이 그제서야 찾아왔다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공기 중의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 봐 얼굴에 일곱 겹의 천을 두르고 다녔다고 한다. 그걸 생각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생 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나는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 비린내뿐만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운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건기 예찬자였고, 인공적인 공간보다는 자연 속에 머물기를 누구보다 좋아했다. 그러나 차를 소유하고부터는 생태적인 어떤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만 그날 아침의 풀 비린내가 원죄 의식처럼 운전대를 잡은 내 손에 남아 있을 따름이다.

- 나희덕, 「풀 비린내에 대하여」

20. 글쓴이가 겪은 ㉠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마음이 답답할 때 무작정 차를 몰고 교외로 나가는 습관이 생김.
- ㄴ. 수많은 풀벌레가 차에 부딪혀 죽은 잔해를 발견함.
- ㄷ. 인공적인 공간보다는 자연 속에 머물기를 좋아함.
- ㄹ. 세차를 했으나 풀벌레들의 흔적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음.
- ㅁ.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풀 비린내를 느끼게 됨.

- ① ㄱ, ㄴ, ㄷ
- ② ㄱ, ㄹ,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21. 다음은 ㉠의 경험을 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 자동차에 관한 글쓴이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전	이후
㉠	처음에는 꼭 필요할 때만 자동차를 가지고 다녔으나, 목적 없이 차를 모는 일이 늘어갔다.	폴벌레의 죽음을 목격한 후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살생 행위임을 자각하게 되었다.
㉡	처음에는 꼭 필요할 때만 자동차를 가지고 다녔으나, 목적 없이 차를 모는 일이 늘어갔다.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언제든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임을 자각하게 되었다.
㉢	미물일지라도 생명이 있는 존재를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생명 존중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꼭 필요할 때만 자동차를 가지고 다녔으나, 목적 없이 차를 모는 일이 늘어갔다.
㉣	폴벌레의 죽음을 목격한 후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살생 행위임을 자각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피비린내도 불러올 수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 하게 되었다.
㉤	출퇴근 때나 장을 볼 때만 차를 가지고 다녔으며, 운전할 때 항상 좌우를 살피며 조심했다.	자동차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피비린내도 불러올 수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 하게 되었다.

22.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색채어를 활용하여 자신이 본 것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③ 반어적 표현을 통해 글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당시 자신이 했던 행동과 느꼈던 감정을 회상하며 솔직하게 제시하고 있다.

23. ㉠의 의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문명의 이기에 의해 파괴된 자연의 처참함
ㄴ. 생명을 파괴했다는 죄의식
ㄷ. 작은 생명체를 배려하고자 하는 태도
ㄹ. 폴벌레들이 달리는 자동차에 부딪쳐 죽은 잔해에서 난 냄새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24. ㉠을 중심으로 뒷글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과 '나'의 모습이 지닌 유사점을 중심으로 생태 문제에 대한 독자들의 반성과 성찰을 유도하고 있다.
- ② ㉠의 절제된 삶과 '나'가 지닌 삶의 태도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자신의 편리를 통해 문명을 발전시킨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있다.
- ③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 삶이 지닌 문제점을 분석하며, 필요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하되, 과도하게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의 생태적 삶과 '나'의 경험을 대조하여 자동
차의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는 '나'의 모습에 대
한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의 경험을 ㉠의 삶의 태도에 대입하며, 끔찍
한 경험에 대처하는 올바른 태도를 강조하고 있
다.

**25. <보기>를 바탕으로 글쓴이가 윗글을 통해 말하
고자 하는 바를 가장 적절하게 파악한 것은?**

— <보기> —

기자: 작품에서 생태주의에 관한 관심을 많이
보이셨는데, 어떤 경험에서 영향을 받은 것
인가요?

글쓴이: 저는 어릴 때부터 다양한 사람들과 어
울러 생활하면서 공동체에 관해 관심이 많았
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조화로운 삶을 꿈꾸었지요.

기자: 앞으로 어떤 작품을 쓰고 싶으신가요?

글쓴이: 근래 우리 사회는 인간 중심의 사고에
서 벗어나 문명에 관한 근본적인 반성이 나
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인간이 아닌
존재들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 ① 인간과 환경을 분열하는 소비주의에 대한 반성
및 자연과의 일체감 표현
- ②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성찰과 자
동차를 사용하는 바람직한 태도
- ③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생활하는 공동체 사회
로의 회귀 촉구
- ④ 개인이 겪은 끔찍한 경험에 적절히 대처하는 성
숙한 태도 강조
- ⑤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 구조에 대한 비
판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④

윗글은 글쓴이가 자동차를 운전하며 겪은 일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생태 문제에 대해 성찰한 바를 전달하고 있다.

- ① 윗글이 비교적 시간 순서대로 전개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여정과 그 건문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② 윗글에서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역설적인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 ③ 윗글에서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상황을 교차하며 비교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 ⑤ 윗글에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2. [정답] ⑤

윗글에서 글쓴이가 ㉠을 보고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 보게 된 것은 맞지만,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① 글쓴이가 ㉠을 본 경험을 바탕으로 자동차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가지고 글을 쓰게 되었으므로 적절하다.
- ② ㉠은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를 해체하여 그네 침대로 만듦으로써, 휴식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은 예술 고유의 전복성으로 자동차가 지닌 기능을 뒤집어 자동차를 새롭게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은 관객이 그네 침대 속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작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를 낯설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 [정답] ①

‘면허를 따 놓고도 5년이 넘도록 차를 살 생각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객지로 이사한 후로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으로 해결해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를 고려할 때 적절하다.

- ② 글쓴이가 운전을 하게 되며 자동차의 편리함에 길들여져 갔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면허를 딴 직후에도 이러한 편리함을 느꼈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③ 글쓴이가 운전을 다시 시작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답답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④ 글쓴이가 자신의 자동차가 너무 작아 밀폐된 느낌을 준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⑤ 글쓴이가 아이들을 낳고 돌보며 면허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4. [정답] ②

ㄱ. 스웨덴의 생태학자인 ‘에민 텡스뮐’의 말을 인용하여 자동차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ㄴ. ‘달리는 무기’나 ‘아늑한 자궁’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동차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ㄷ. 윗글은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생태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ㄹ. 윗글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5. [정답] ④

윗글은 현대인들의 모순된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자동차의 속성을 전시회의 작품 제목을 빌려 표현하고 있다.

- ① 윗글에 따르면 자동차가 생명을 살생하는 위험한 도구라는 인식은 기존의 시각에 해당한다.
- ② 윗글에서 자동차가 개발되며 인간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벗어나 더욱 안락한 보금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쉬워졌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 ③ 윗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 오롯이 혼자가 될 수 있는 공간이 자동차로 한정되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 ⑤ 윗글에서 자동차를 통해 쉽게 이동하기 위해 국토를 개발하면서 기존에 존재했던 자연 생태를 파괴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6. [정답] ④

‘아늑한 자궁’이라는 표현은 운전자만의 아늑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안전한 느낌을 준다는 설명은 부적절하다.

① ‘달리는’을 통해 이동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무기’를 통해 사고 위험성이 있는 자동차의 성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를 충족해 주는 자동차의 성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⑤ ‘에민 텅스롭’의 말에 따르면 자동차가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과 같은 현대인의 모순된 욕망을 충족해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7. [정답] ④

윗글에서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이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녔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 문명과 거리를 두고 산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①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를 고려할 때 적절하다.

②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생 행위라고’ 생각하며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태도를 고려할 때 적절하다.

③ ‘그걸 생각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생 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⑤ ‘그리고 그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져서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 비린내뿐만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8. [정답] ②

이 글은 자동차와 관련된 글쓴이의 경험 및 옛날 티베트의 승려의 사례를 들어, 문명과 생명 존중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① 윗글이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사회적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윗글은 자동차에 대한 글쓴이의 주관적인 정서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④ 윗글이 일상에서의 경험을 다루고 있는 것은 맞지만, 예술 작품에 대한 글쓴이의 비평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윗글에서 자동차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인물들 사이의 대화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9. [정답] ③

①은 풀벌레를 죽인 글쓴이의 기억을 상기한다는 점에서 죄책감과 관련이 있으며, ②는 운전을 할 때 의도하지 않더라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깨달음과 관련이 있다.

① ①과 ② 모두 자동차를 통해 충족할 수 있는 모순된 욕망과는 관련이 없다.

② ①과 ② 모두 차를 소유한 사람들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 의식이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①이 자신의 편안함보다 다른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우며, ②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편안함을 누리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낸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①이 비현실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우며, ②가 현실적인 목표를 모색하는 모습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10. [정답] ②

‘목불인견’은 ‘눈앞에 벌어진 상황 따위를 눈 뜨고는 차마 볼 수 없음’이라는 뜻이므로 적절하다.

① ‘견물생심’은 ‘어떠한 실물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김’이라는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우이독경’은 쇠귀에 경 읽기라는 뜻이며,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 주어도 알아듣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글쓴이가 풀벌레들을 죽일 것을 알면서도 함부로 운전을 한 것은 아니므로, ‘결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있음’이라는 뜻의 ‘방약무인’은 적절하지 않다.

⑤ 글쓴이가 자신이 풀벌레들을 죽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지 않으며, ‘토사구팽’은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11. [정답] ⑤

윗글은 수필로, 글쓰이가 자신이 얻은 교훈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독자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자동차라는 일상적인 대상을 바탕으로 한 생태적 사유를 통해 주제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자동차를 운전하다 풀벌레를 죽인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풀 비린내'라는 후각적인 표현을 활용해 자동차를 사용하는 바람직한 태도와 생태주의에 대한 성찰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자동차에 대해 미물인 풀벌레뿐만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2. [정답] ③

'그것을 닦아 내려다 나는 지난밤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 도망치듯 세차장으로 갔다.'를 고려할 때 적절하다.

① 글쓰이는 갑자기 서울에 갈 일이 생겼지만 차표를 구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서울까지 운전을 했다.

② 글쓰이가 서울에서 광주로 돌아오는 길에 긴장을 한 것은 맞지만, 사고를 낸 것은 아니다.

④ 글쓰이는 자신이 풀벌레를 죽인 것이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⑤ 글쓰이는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손을 씻는 습관이 생겼다.

13. [정답] ②

<보기>의 '성이 난 풀잎'과 같은 표현을 통해 자연물을 의인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윗글에서는 자연물을 의인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

① 윗글은 풀벌레를 죽인 경험, <보기>는 잡풀을 뽑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③ 윗글에서는 운전을 한 행위의 이유로 '서울에 갈 일이 생겼는데 차표를 구할 수 없어서'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보기>에서는 풀을 베는 행위의 이유로

'장마가 지면 고추밭이 풀밭이 되고 올안의 빗물도 빠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④ <보기>에서는 대상에 대한 글쓰이의 생각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윗글은 풀벌레를 죽인 경험을 계기로 '자동차'에 대한 글쓰이의 생각이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보기>에서는 글쓰이의 경험과 대조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없다. 반면, 윗글은 운전을 하다 풀벌레를 죽인 자신의 경험과 '옛날 티베트 승려들'의 사례를 대조하고 있다.

14. [정답] ③, ④

③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와 같이 말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④ '그리고 그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 비린내뿐만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와 같이 말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① 윗글의 글쓰이가 생태계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② 윗글의 글쓰이가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⑤ 윗글의 글쓰이가 자동차를 다른 교통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15. [정답] ④

(가)를 통해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가)는 자동차를 활용한 전시품을 본 경험으로, 이를 통해 자동차라는 중심 소재를 자연스럽게 제시하고 있다.

②, ③, ⑤ 글쓰이는 (가)를 통해 일상적인 대상을 전복적인 시각에서 재해석한 예술품을 감상한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예술적 시각을 바탕으로 자신 역시 자동차에 대해 성찰하게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16. [정답] ④

㉠은 전시를 통해 자동차라는 익숙한 대상을 뒤집어 보게 된 것을, ㉡은 풀벌레를 죽인 경험 이후 익

숙해진 자동차의 편안함에 대해 다시 경각심을 갖게 된 것을 의미한다.

① ㉠과 ㉡ 모두 글쓰이가 자신의 게으름을 성찰하게 된 계기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과 ㉡ 모두 오랫동안 운전을 하지 않던 글쓰이가 다시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의미라고 보기 어렵다.

③ ㉠은 대상을 예술 고유의 전복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을, ㉡은 비판적·성찰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을 의미한다.

⑤ ㉠이 글쓰이가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소하다고 생각한 것들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17. [정답] ②

윗글에서 현대인이 자동차에 안주하려는 욕망을 느끼는 것은 자동차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① '자동차라는 물건이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이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해 준다."라고 말한 바 있다.'라는 내용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③ '나'가 실제적인 목적 없이도 차를 모는 일이 잦아진 것은, 현대인들이 자동차에서 잠시도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과 관련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가 마음이 답답할 때 무작정 차를 몰고 교외로 나간 것은, 운전자에게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는 자동차의 속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자동차가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줄 수 있다는 것은, 이동 수단으로서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충족해 주는 자동차의 속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적절하다.

18. [정답] ②

⑥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모순된 욕망과 관련하여, 아늑한 공간도 마련해 주면서 어디로든 이동하게 해 주는 기계라는 자동차의 이중적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적절하다.

① 문맥을 고려할 때, ⑥는 자동차를 통해 사용하는 사람의 개성을 알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③ 문맥을 고려할 때, ⑥는 자동차의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측면 역시도 강조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④ 문맥을 고려할 때, ⑥는 자동차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⑤ 문맥을 고려할 때, ⑥는 자동차라는 밀폐된 공간을 안락한 공간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내용과 관련이 없다.

19. [정답] ④

윗글의 글쓰이는 풀벌레들이 달리는 자동차에 부딪쳐 죽은 잔해를 보고, 자신이 편리함을 누리는 동안 다른 생명은 죽어 갈 수도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 글의 제목인 '풀 비린내에 대하여'는 이러한 글쓰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후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① 윗글의 글쓰이가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을 그 만두게 된 것은 아니다.

② 윗글에서 글쓰이가 운전을 하다 풀벌레를 죽인 경험을 다루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극복하고 다시 운전을 시작하기 위해 글을 썼다고 보기 어렵다.

③ 윗글의 글쓰이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대조적인 태도를 지녔음을 지적하고 비판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윗글의 글쓰이가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과거와는 달리 자연을 접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보기 어렵다.

20. [정답] ④

ㄴ. '다음 날 아침 출근을 하려는데 유리창은 물론이고 앞 범퍼에 푸르죽죽한 것들이 잔뜩 엉겨 있었다. 그것은 흙먼지가 아니라 수많은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쳐 죽은 잔해였다.'를 고려할 때 적절하다.

ㄷ. '그러나 세차 기계의 물살에도 엉겨 붙은 풀벌레들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를 고려할 때 적절하다.

ㄹ.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풀 비린내는 몸서리치는 기억으로 남았고, 나는 손을 씻고 또 씻었다.'를 고려할 때 적절하다.

ㄱ. ㉠을 경험하기 전 글쓰이의 상태에 해당한다.

ㄷ. 자동차의 편안함에 익숙해지기 전 글쓴이의 상태에 해당한다.

21. [정답] ①

글쓴이는 객지로 이사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실제적 필요성에 따라 운전을 했지만, 점차 편리함이라는 자동차의 속성에 익숙해지며 목적 없이 차를 모는 일이 늘어갔다. 하지만 풀벌레의 죽음을 목격한 후로,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살생 행위임을 자각하며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되었다.

② ㉠의 경험 이후로 글쓴이는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 자체가 인간을 비롯한 생명을 살생할 수 있는 행위임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자신과 가족의 안전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의 경험 이전에 글쓴이가 생명 존중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전'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후'로 제시되어 있다.

④ '이후'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전'으로 제시되어 있다.

⑤ ㉠의 경험 이전에 글쓴이는 점차 편리함이라는 자동차의 속성에 익숙해지며 목적 없이 차를 모는 일이 늘어갔다. 따라서 출퇴근 때나 장을 볼 때만 차를 가지고 다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운전을 할 때 항상 좌우를 살피며 조심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22. [정답] ③

윗글에서 반어적 표현을 통해 글의 주제를 강조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① '푸르죽죽한'이라는 색채어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과 같은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후들후들'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글쓴이가 수많은 풀벌레가 차에 부딪혀 죽은 잔해를 발견하고 했던 행동 및 그때의 감정을 진솔하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3. [정답] ⑤

㉠은 일차적으로 풀벌레들이 달리는 자동차에 부딪쳐 죽은 잔해에서 나는 냄새(ㄹ)를 의미한다. 이는 글쓴이에게 자신이 수많은 풀벌레들을 죽였다는 것을 상기시켜 생명을 파괴했다는 죄의식(ㄴ)을 느끼게 한다. 또한 '자동차'라는 문명의 이기에 의해 자연의 일부인 '풀벌레'가 죽게 되었다는 점에서 문명의 이기에 의해 파괴된 자연의 처참함(ㄱ)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다.

ㄷ. ㉠이 작은 생명체를 배려하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24. [정답] ④

글쓴이는 운전을 하다 무수한 풀벌레를 죽인 '나'의 경험을, 철저하게 생명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의 태도와 대조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자동차의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한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① 윗글이 생태 문제에 대한 독자들의 반성과 성찰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과 '나'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다.

② ㉡의 절제된 삶과 '나'가 지닌 삶의 태도의 공통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자신의 편리함을 통해 문명을 발전시킨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있지 않다.

③ ㉡의 사례를 바탕으로 '나'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⑤ '나'의 경험을 ㉡의 삶의 태도에 대입하고 있지 않으며, 끔찍한 경험에 대처하는 올바른 태도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

25. [정답] ②

<보기>의 작가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난 작품을 쓰고자 한다. 윗글은 풀 비린내에 대한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태적인 사유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① 윗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인간과 환경을 분별하는 소비주의에 대한 반성 및 자연과의 일체감을 표현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윗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생활하는 공동체 사회로의 회귀를 촉구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④ 윗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개인이 겪은 끔찍한 경험에 적절히 대처하는 성숙한 태도를 강조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⑤ 윗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서지정보

저자 김혜린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8134-4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50410

가격 1,700원

값 1700 원

55710



9 791137 781344

ISBN 979-11-377-8134-4 (PDF)